

# 전남 '역대 최고성적'...광주 '의미있는 선전'

### 동계체전 폐막...전남 조다는 2년 연속 5관왕·4관왕 2명 등 '8위' 광주 불모지 피겨·빙상서 문승현·장윤우 뜻깊은 은·동메달 획득

전남 선수단이 올해 동계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에서 분산 개최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9개, 은메달 9개, 동메달 8개 등 총 3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은 종합득점 330점, 종합 순위 8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작성했다. 이는 1996년 동계체전에 출전한 이래 가장 많은 메달과 가장 높은 종합득점 기록이다.

지난해 열린 제103회 체전에서도 역대 최다 메달(32개), 최고 점수(306점)를 획득한 전남 선수단은 올해도 5관왕 1명, 4관왕 2명, 3관왕 1명을 배출했다.

한국 크로스컨트리 기대주 조다은(화순제일중 1년)은 2년 연속 5관왕에 올랐다. 스키 크로스컨트리(여자 16세 이하) 클래식 3km, 프리 4km, 6km 계주, 복합, 0.7km 스프린트 등 5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랍신(전남체육회)은 4관왕, 압바쿠모바(서정마크씨밋)은 3관왕에 올랐다.

랍신은 스프린트 10km, 집단출발 15km, 22.5km 계주, 혼성계주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에카테리나도 스프린트 7.5km, 집단출발 12.5km, 혼성계주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체육회는 2년 연속 동계체전에서 한자리 수순위에 오르며 더 이상 동계종목 불모지가 아님을 증명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팀(화순초-화순제일중)은 다관왕을 다수 배출, 선수 육성 시스템의 진가를 입증했다.

현장에서 선수단을 응원한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전남체육회는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계육성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동계 종목에서 신성장자로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선수단은 종합득점 116점으로 1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성적 14위(75.5점)보다 한계단 올라섰다.

광주는 사전경기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초부



화순 제일중 크로스컨트리팀 전다경·안미랑·조다은.(왼쪽부터) <전남도 체육회 제공>

2000m에서 장윤우(성덕초 5년)가 동메달을, 피겨스케이팅에서 문승현(주월초 4년)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문승현은 광주에서 유일한 피겨스케이팅 남초부 등록 선수로 빙상불모지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남체육회장은 "동계종목 불모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 더 의미가 있다"며 "안전사고 없이 마쳐 기쁘고 광주를 위해 뛰어난 선수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피겨스케이팅에서 광주에 은메달을 안긴 문승현(왼쪽). <광주시체육회 제공>



## 존폐 갈림길 영암군 민속씨름단 존치 '가닥'

### 우승회 군수 "공론화위 권고 수용" 효율적 운영 통해 씨름단 재도약

존폐 갈림길에 섰던 전남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존치 쪽으로 가다가 잡혔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20일 영암군청 남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씨름단의 존치와 투명한 운영을 요구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군민이 인정한 씨름단으로서 재출발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성직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씨름단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씨름단 운영으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군민과 함께하는 씨름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씨름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도비 확보, 스

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암군 홍보, 최고의 씨름단 육성과 선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군은 지역 내에서 씨름단 찬반 여론이 팽팽하자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분야별 전문가 등 7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여론 수렴에 나섰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군민 1018명을 대상으로 한 1·2차 여론조사에서 '씨름단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1.5~52.1%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토론회에서 70.2~74.3%가 씨름단 유지를 찬성하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씨름단의 지속 운영'을 권고했다.

영암군은 2017년 조선경기 불황으로 해체 위기에 있던 국내 유일의 프로팀 '현대캐피탈씨름단'을 인수해 운영 중이다.

씨름단 운영비는 2017년 17억2600만원을 시작

으로 2018년 17억6200만원, 2019년 16억1000만원, 2020년 18억9200만원, 2021년 15억9770여만원, 지난해 21억532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 6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군비 씨름단 운영비로 투입됐는데, 출범 직후인 2017년 국비 4억원과 도비 3억원이 지원됐을 뿐 2018년 이후 군비와 민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출범 당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군비 부담금을 10억원으로 묶고, 나머지 소요예산은 국·도비를 유치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홍보 효과 의문, 대회 때마다 공무원 동원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무형 광고로 농산물 판촉과 지역홍보 등에 지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전갑수 광주체육회장 동계체전 방문 격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전국동계체전 현장을 방문했다.

전 회장은 지난 17일 동계체전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를 찾아 광주 선수단을 격려했고 선전을 당부했다. <사진> 전 회장은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동계종목 선수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비인기 동계종목인 스키협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능한 작은 일부터 파악해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빙속 정재원 월드컵 매스스타트 은메달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장거리 대표주자 정재원(의정부시청)이 시즌 마지막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재원은 19일(현지시간) 폴란드 토마슈프 마조비에츠키의 로도바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6차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8분19초40의 기록으로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 스프린트 포인트 40점을 따내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후반까지 무리하지 않고 중위권에서 기회를 엿보던 그는 마지막 바퀴에서 스피트를 내 선두로 올라섰으나 종료 직전 네덜란드의 바르트 홀버트프(8분19초32)에게 단 0.08초 차로 역전을 허용했다.

함께 출전한 이승훈(IHQ)은 8분19초56으로 4위에 그쳐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지난해 11월 2차 대회에서도 이 종목 은메달을 획득한 정재원은 이번 시즌 월드컵 남자 매스스타트 성적을 합산한 최종 랭킹에서 5위(352점)에 이름을 올렸다. 이승훈은 월드컵 랭킹 8위(290점)다. 이날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선 박지우(강원도청)가 8위(9분12초83), 황현선(전북도청)이 15위(9분06초05)에 자리했다.

이 종목 월드컵 최종 랭킹은 박지우가 7위(323점), 황현선은 21위(89점)다.

여자 500m 랭킹 1위인 '신빙속여제' 김민선(의정부시청)은 1000m 디비전A(1부)에서 15위(1분18초26)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 팜키 불, 실내육상 여자 400m 세계신기록

### 49초26...41년 만에 경신

2023년 초 실내육상 시즌 트랙 종목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팜키 불(23·네덜란드)이다.

불은 20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아펠도른에서 열린 네덜란드 실내육상선수권대회 여자 400m 결선에서 49초26으로 우승했다.

이날 불이 작성한 49초26은 자말라 크라토츠블로바가 1982년 체코슬로바키아 국적으로 세운 49초59를 0.33초 넘어선 세계신기록이다. 무려 41년 만에 새로운 기록이 탄생했다.

불은 2월 11일 프랑스 메스 인도어 미팅에서 세운 종전 개인 최고 기록 49초96을 0.7초나 당겼고, 세계 기록을 바꿔냈다.

경기 뒤 불은 세계육상연맹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늘 기록을 경신하길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 오늘 내 개인 기록을 넘어서며 세계 기록까지 작성해 정말 기쁘다"며 "오늘 정

말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 오셨다. 팬들의 함성을 듣고 내가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불은 2월 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인도어 그랑프리 여자 500m 경기에서도 1분05초63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보통 사이에 두 개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할 정도로 올 시즌 불의 위세가 대단하다.

불은 2023년 차를 5개의 결선(400m 3차례, 200m와 500m 각 1차례)에서 모두 우승했다.

불의 주 종목은 400m 허들이다.

이 종목에서 불은 2021년 도쿄올림픽 3위, 2022년 유진 세계선수권 2위에 올랐다.

여자 400m 허들에는 '역대 최고 선수' 시드니 매클로플린(24·미국)이 버티고 있다. 매클로플린은 도쿄올림픽·유진 세계선수권에서 모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400m에도 능한 불은 '400m 허들과 400m 병행'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실내육상선수권대회 여자 400m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운 팜키 불이 팬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2관	타이타닉
3관	타이타닉, 영웅
4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5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6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두다다쿵: 후후섬의 비밀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7관 씨네커피	에메이징 모리스, 교섭,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8관 씨네커피	영웅, 메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명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

즐거움  
**문화산책**